

기적은 가까이 있다

김 일 균 (목사, 충주 대평교회)

올 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데 기적을 주시겠다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어떤 기적을 주실까 궁금해졌다. 성도가 얼마 안 되는 교회에 갑자기 성도를 많이 보내주시려는가? 아니면 교회를 건축하시라고 누군가로부터 큰 헌금을 하게 하시려는 것인가? 생각하며 한 달을 보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해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안수집사로 피택된 ‘ㄱ’집사님의 아내가 몸에 통증이 있어 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자신도 몸에 이상이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아내는 치료를 하면 낳을 수 있는 병이고, ‘ㄱ’집사님의 경우는 폐 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종합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이었다. 집사님 부부는 서울 중앙병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검사를 하였다. 폐암 말기였다.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도 몇 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다. 항암치료 덕분인지 성도들의 기도 덕분인지 12월부터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았다. 더 이상 암 세포가 진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요즘도 두 달마다 검사를 받는데, CT상으로는 암세포가 퍼지지 않고 그대로라고 한다. 몸도 더 좋아지셨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는다.

2월 중순 경의 일이다. 집사람(사모)이 월중 행사가 늦어진다고 하였다. 생리불순이겠지 하였다. 하지만 한 쪽으로는 임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짧게 스쳐지나갔다.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를 하였다. 처음 검사는 약하게 임신 쪽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하였다. 아직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리불순보다는 임신 쪽으로 확신이 갔다. 그래서 임신테스트기를 사서 다시 한 번 검사하였다. 임신 쪽으로 확실하게 나타났다. 두 주 정도 지나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임신으로 판명되었다. 집사람과 나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다. 왜냐하면 첫째와 둘째의 터울이 좁아서 기르느라고 힘이 들었기 때문에 셋째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비뇨기과에 가서 수술을 하였던 것이다. 시간이 많이 지나 셋째를 가질 요량으로 푸는 수술을 하였는데 3년 동안 잘라 놔두었던 것을 다시 복원하니 쉽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포기하고 있다가 수술 1년 후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해 보니 임신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노력 끝에(?)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확실히 한 명은 전도하였다.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 또 하나의 기적은 우리 교회 80이 넘으신 ‘오’권사님에게 일어났다. 그 기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알고 주변을 정리하고 큰 고통없이 주님의 품으로 가신 일이다. 중풍으로 30여 년간 한쪽을 제대로 쓰시지 못하는 고생을 하면서도 내가 부임했을 당시부터 소천하기까지 모든 예배에는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셨다. 성도들의 모범이 되셨다. 80이 넘었음에도 대표기도를 시키면 사양하지 않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기도하셨다. 항상 감사하였다. 그런데 두 달 전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신 권사님은 마치 멀리 떠나 갈 사람처럼 옷을 정리하셨단다. 따님 집사님이 말렸더니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권사님은 그 다음날부터 자리에 누우셔서 보름 만에 큰 고통 없이, 자택에서 목사가 불러주는 찬송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

다. 모든 장례 절차도 목사에게 일임하여 은혜롭게 잘 치를 수 있었다. 몇 명 안 되는 성도 가운데 권사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알고 본인이나 자식이나 큰 어려움 없게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다. 이 작은 교회에 나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는다. 기적은 아주 가까이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약장수와 목사

수요 예배를 알리는 종을 친 후에 기쁜 마음으로 차량운행을 나섰다. 왜냐하면 20여 일 동안 아들 집에 가셨던 ‘ㄱ’권사님 부부가 오셔서 태우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권사님을 기쁜 마음으로 태우고 다음 코스로 갔다. 그곳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타는 코스였다. 지난 겨울에 아들집에 가셨다가 4월 초에 오신 83세 되신 ‘ㄴ’권사님과 젊은 집사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다. 차가 그 코스에 도착할 무렵 보여야 할 ‘ㄴ’권사님이 보이지 않았다. 언제나 스치로폼을 깔고 앉아서 차를 기다리고 계셨던 권사님은 보이지 않고 젊은 집사님 혼자만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집사님 왈 “그 권사님은 목계에 있는 약장수한테 갔다”는 것이었다. 요사이 이 주변에 약장수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지만, 저녁 7시에 약장수 차가 와서 데리고 갔다는 말이었다. 수요 예배시간을 빼 먹고 가신 권사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약장수들은 할머니를 재미있게 해주고, 화장지도 주고, 편하게 해 준다고 한다. 그런 약장수들의 속셈은 뻔하지 않은가? 할머니들도 약아서 비싼 약은 사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어찌 알 수 있는가?

그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였던니 예전에도 몇몇 노인 집사님들이 그런텔 잘 쫓아다녔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란다. 설교 중에 목사가 약장수보다 못하다고 하였다. 앞으로는 더 재미있고 웃기고 올 때마다 선물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였다니, 남자 ‘ㄱ’집사님 왈 “그러다가 우리교회 거덜난다고”하신다.

이렇듯 목사는 항상 세상의 맘몬과 싸워야 한다. 세상보다 더 뛰어난 그 무언가가 없으면 성도들을 세상에 다 빼앗기고 만다. 비단 이 권사님에게만 있는 문제인가?

요즘 농사철이다. 우리 동네는 복숭아로 먹고 사는 동네다. 복숭아 철만 되면 목사는 시름에 잠긴다. 복숭아 일 때문에 그나마 제일 젊은 집사님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 복숭아는 손이 많이 간다.

겨울부터 시작되는 전지, 꽃 적과, 열매 적과, 소독, 포장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리고 힘들다. 그러니 나올 수가 있겠는가? 목사의 입에서는 한 시간이라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면 안되겠느냐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나오지만,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주일에 나오지 못한다고 믿음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다.

목사인 나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버릴 수 없는 맘몬은 없는지 생각해 본다. 주님 보다 우선 순위로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여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반성해 본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목회자인 네가 먼저 자신의 맘몬을 버려야 모든 성도들도 자신들의 맘몬을 버릴 것이라고.”

나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드린다. “주님, 주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내 마음 속의 맘몬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農